"성적 나쁘면 대출도 못받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B학점 이상 제한 추진 논란

학생·교수들 "가정 형편 기준으로 저리 지원을"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기준이 학생들의 생활 형편이 아닌 '학점'에 맞춰져 있어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ICL 대출 자격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 교수들은 ICL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점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들은 특히 "학비 마련이 힘들거나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과 일(또는 아르바이트)을 병행하기 때문에 자연히 성적이 떨어지고 심지어 자퇴하기까지 한다"면서 "결국 생활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우면 객관적으로 학업 성적이 나쁠 확률이 높은데,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가난하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논리가 된다"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학기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생겨 학점을 나쁘게 받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더욱이 교수들은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나쁘게 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학사관리 마저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환금리에 대한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안은 금리 5.8%에 복리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 4년 동안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최종 납입액은 9천만원 달한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다수의 정부 정책 자금의 금리가 1~4%인 만큼 ICL 금리도 대폭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이철갑 기획조정부실장은 "경제 사정상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해 저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수업 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학내 아르바이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0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제5회 광주일보 문학상에 대한 시상식이 19일 오후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노창수 광주일보신춘문학회장, 정보고(신춘문예 소설), 이슬(〃 시), 이영아(〃 동화), 김옥애(광주일보 문학상)씨,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문단 빛낼 작가로 성장하길"

광주일보 신춘문예·문학상 시상식

'금남로 가는 길' 출판회도

201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와 제5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 시상식이 19일 오후 4시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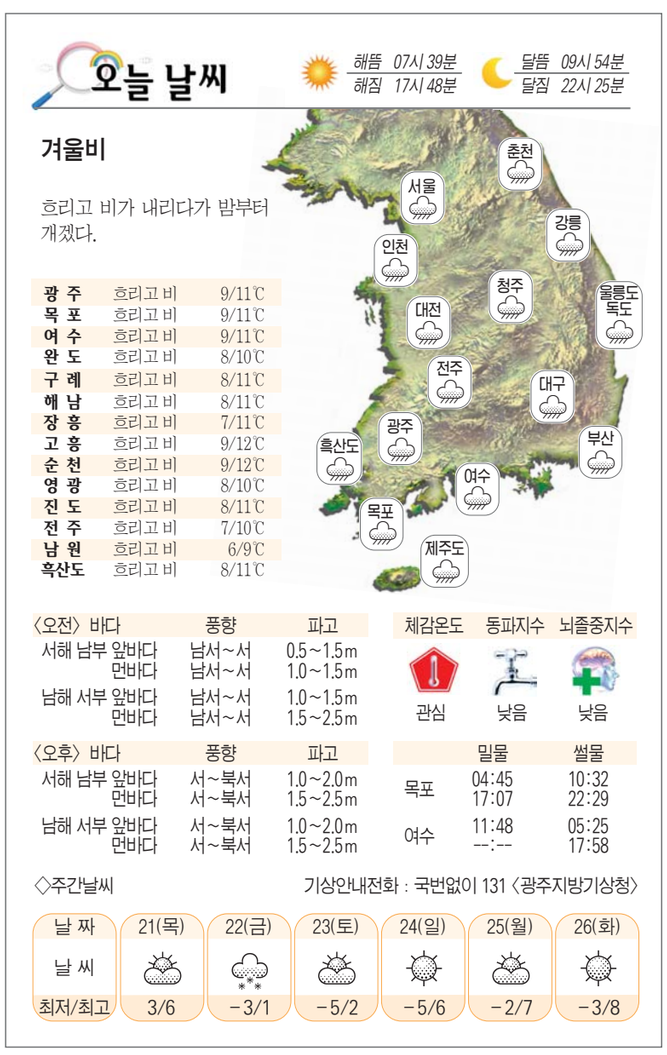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0년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자 정보고(49)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이슬(18)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이영아(44)씨에게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광주일보 문학상의 다섯 번째 수상자인 동화작가 김옥애(65)씨에게도 상패와 창작지원금 300만 원이 수여됐다. 광주일보 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예출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마련됐다.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은 축사에서 "올해 신춘문예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고 좋은 작품이 당선됐다"며 "수상자들은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쳐 자신은 물론 예향 '광주', 나아가서는 문단을 빛낼 작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회원들의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열세 번째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적십자회비 납부율 '인색'

19% 그쳐 7대 도시 중 최하위 … 전남은 37% 광역도 중 1위

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광주시민들이 적십자회비를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는 재난 및 긴급 구조구호, 취약계층 지원,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쓰인다.

지난 해 적십자회비 납부율(고지서 발부 대비 참여율)은 전국 평균이 30%였으나, 광주는 18.9%로 전국 7개 대도시 중 최하위였다. 전남은 36.5%로 9개 광역도 중 1위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등은 5·18민중항쟁 30주년을 거치면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 시민의 위상에 걸맞게 적십자 활동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는 5월 항쟁의 경험 탓에 헌혈률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고 납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는 1990년대에만 해도 매년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전국 최고였으나 납부가 지로용지 형태가 바뀐 뒤로는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2000년 전에는 시민들이 적십자회비를 직접 마을 통장 등에게 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이 강해 납부율이 높았으나, 그 이후 지로용지 납부가 도입된 뒤에는 준조세로 오인한 사람들이 많아 관심이 점차 하락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올 해 목표액은 광주 9억원, 전남 17억 5천만원으로 모두 26억5천만원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채용비리' 교장해임 거부 정광학원

학급 감축 등 강도 높은 제재 돌입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희망 학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을 원하는 학교법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건학이념, 학교 운영, 교육과정, 입학전형,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법인은 '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재정 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채용비리 관련자의 해임요구를 거부〈본보 2009년 5월 16일자 3면〉한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대해 올해부터 학급을 감축하고 재정지원 등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 교육청의 처분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광고(정광학원)에 대해 올해 2학급을 줄이고, 앞으로 2년간 매년 2학급씩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광고는 올 1학년 신입생부터 종전 12학급에서 10학급으로 줄어들며, 2012년에는 현 3개 학년 36학급이 30학급으로 조정된다.

이번 학급 감축 조치로 교사의 감원도 이뤄지게 돼 당분간 퇴직 교사 등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광학원에 대한 재정적 제재 조치로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을 제외한 학교시설 개선비 등 특수목적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 교육청은 또 각종 우수·시범학교 선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도 제외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포근한 大寒…겨울비 '촉촉'

대한(大寒)인 20일 광주·전남은 비가 내리겠으나 낮 최고 기온이 15.6도까지 올라갔던 전날에 이어 초봄같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갤 것"이라고 19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30㎜로 지역에 따라 겨울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흐리다가 22일부터 눈이 오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총경급 간부 26명 인사

경찰청은 19일 김재석 완도서장을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김장완 순천서장을 전남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하는 등 총경급 간부 29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6면〉

경찰청이 '적재적소의 원칙'을 내세운 이번 인사에서는 광주청과 전남청의 총경급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 발령이 이뤄졌다.

광주청은 이번 인사에서 한재숙 장성서장이 경무과장으로 이동했고, 박석일 전 해남서장이 경비교통과장으로, 김진희 광주동부서장이 보안과장으로, 양성진 전남청 경비교통과장이 광주동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최정환 광주청 경무과장은 광주서부서장으로 이동했고, 박봉기 전남청 경무과장과 송두현 경기청 교통과장이 각각 광주남부서장과 광주북부서장을 맡게 됐다.

전남청은 청문감사담당관에 이상기 전 전북 순창서장이 임명됐으며, 경무과장에는 이 윤 광주북부서장이, 경비교통과장에 백혜웅 광주서부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김창식 보성서장은 보안과장으로, 황호선 청문담당관은 순천서장으로, 김수율 광주청 보안과장은 장흥서장으로 각각 이동했고, 홍보담당관으로 일해온 노병현 총경은 완도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